사회학 분야에서의 청소년비행연구 동향과 과제

김 준 호*

- I. 서 론
- II. 청소년비행의 현상론에 대한 연구활동과 그 과제
- III. 청소년비행의 원인론에 대한 연구현황과 그 문제점
- IV. 앞으로의 과제
- V. 결 론

I. 서 론

한 인간이 수정의 순간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 청소년기를 거친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라는 인생의 단계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없던 개념으로, 1904년 Hall이 인생의 발달 단계 중 한 단계로 청소년기란 개념을 도입한 이래로 이 시기의 중요성이 학문 분야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고대 희랍에서부터 가변적이고 열정적인 청소년에 대한 주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농경 사회에서는 부모의 일을 보고 배우며, 바로 생산 활동에 참여했음으로 어린이도 어른도 아

닌 주변기적 시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각의 교육 기관에서 연령을 구별하여 교육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연장되며, 그 종사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이 연령 집단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청소년기는 명료하게 구분되는 한 발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정의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청소년기의 시작은 보통 생리학적으로 정의되지만, 그 기간과 종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대신 심리적 기준에 의해 청소년기의 종료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종결에 대한 연령을 결정하려는 시도는 적합한 기준의 선택이나 현저한 개인차 때문에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각 나라에서는 청소년기의 종결을 공식화하기 위해 성인의 사회적 지위를 청소년에게 주고 그 사회가 구성원에게 의무와 책임 및 권리를 요구하는 법률상의 성인을 제정하고 있다. 우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

리 나라는 대개 20세 이상을 법률상의 성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들마다의 개인차가 있겠으나 대략 그 연령 범위를 만 11세에서 20세까지로 볼 수 있겠다. 오늘 날의 사회에서는 사춘기는 오히려 과거보다 빨리 시작되는 추세이고, 사회적으로 성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은 늦어지고 있다. 즉 이것은 청소년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청소년 자신이나 부모에게 있어 청소년기 이전의 시기보다 어려운 단계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적·역사적 변화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며, 자신의 개인적 본성을 정의하는 데에 관한 긴장이 시작되고, 급작스러운 생물학적 변화와 심리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즉, 사춘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생식기의 빠른 발육과 성 관계 호르몬 활동에 있어서의 거대한 증가가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의 욕구가 생기며, 인지적 기능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룩하게 된다. 이 시기의 문제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의 심한 긴장이 일어나 안정과 평형을 찾기에 여념이 없게 된다는 것인데, 일찌기 겪어 보지 못하던 급격한 신체적 변화만으로도 그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독립심이나, 성적 적응, 교육 및 직업 준비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또한 이러한 요구에 대한 성취 압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종합되어질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생리학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즉 성숙 과정을 보면 신체적 성장, 몸 크기의

변화, 호르몬 변화 및 성적 충동의 증가, 이차적 성 특징의 발달과 인지능력의 성장 및 분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특징이 청소년기와 그 이전 발달단계와의 구별을 짓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로 인하여 청소년기의 보편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의식이 고양된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사회, 심리적 자아의 발달은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사회적인 유기체로서의 자신을 느끼게 하며, 타인, 환경, 자신에 대한 독자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게 하고 스스로의 자아정체가 발견을 위해 진력하게 한다. 즉, 아동기에는 주로 외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것이 청소년기에 자기자신의 세계에 몰입하여 자아의 발견에 주력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기는 욕구가 일어난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욕구의 방향으로 규정지어 연구한 학자는 McAllister로서 청소년의 욕구를 ① 정체감의 욕구 ② 개성의 욕구 ③ 자아통합의 욕구 ④ 독립의 욕구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McAllister, 1970). 넷째, 청소년기는 불안의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불안기, 또는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시기, 고통의 시대, 행동의 중용이 없는 시기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Hurlock(1976)은 여러 학자들의 제견해를 종합하여 청소년기의 특징을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전환기이며 심리, 정서, 흥미, 행동, 가치관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기, 불안기, 비현실적인 시기로서 성인기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는 시기라고 요약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번뇌를 느껴야 하는 문제들을 사회제도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청소년들이 해결하려는 노력은

여러가지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좌절, 반항, 일탈행동 및 균형적 정체의식의 점진적 발전등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청소년 행동유형들은 인생의 전과정에서 볼 때 성장과정의 한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보아 넘기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비행이 사회학의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는 것이다. 청소년비행이 범죄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전체 범죄 중에서 청소년비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성인 범죄자의 대부분이 비행청소년 출신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궁극적으로는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크게 현상론, 원인론, 대책론의 세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왔다. 청소년비행의 현상론은 주로 공식통계를 중심으로한 연구와 피해자조사 *victim survey* 및 자기보고식 연구 *self-report study*를 중심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론적인 틀 안에서 사회조사통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왔고, 대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연구의 현황을 이러한 세가지 측면 중 현상론과 원인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 후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¹⁾

II. 청소년비행의 현상론에 대한 연구 활동과 그 과제

1. 청소년비행의 개념의 다면성

청소년비행에 대한 현상론은 원인론과 대책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 원인이나 대책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엄밀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요청되며, 경험적,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이며 따라서 현실과는 유리되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며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측정수단이 필요하다. 적절한 수단이 없으면, 아마도 모든 이론적 논의는 사변적인 추상에 그치고 막게 될 것이며 축적적인 지식의 증가란 기대되기 힘들 것이다. 사회과학의 대부분의 개념이 그러하지만, 청소년비행이라는 개념만큼 정의하기가 힘든 용어도 많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비행을 양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청소년비행에 관한 제이론을 살펴보면 청소년비행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비행을 비행행위 *deviant behav-*

1) 구미의 전통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에 대한 대책론은 법학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사회학에서는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ior 혹은 *delinquent act* 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우발적인 행위이건, 의도적인 행위이건, 혹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이건, 일시적, 1회적인 행위이건간에 일정한 규범을 어긴 행위이면 모두 비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²⁾

둘째, 청소년비행의 주된 연구대상을 비행행위보다는 비행자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정상소년과 구별되는 비행소년은 적어도 비행행위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는 소년들로서 대부분 자기 스스로도 비행소년이라는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최종적인 분석대상은 비행행위라고 하더라도, 연구의 주된 대상은 이러한 비행소년들의 비행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³⁾

셋째, 비행자 중심과 비행행위 중심 이론을 종합한 관점이 있다. 즉 어느 행위나 다 규범을 어기는 행위가 모두 비행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일정한 행위군만이 비행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조되는 점은, 1회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과,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소한 비행행위, 예를 들면 사소한 주먹질, 부모에 대한 반항등의 정도가 약한 행위는 제외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위를 성인이 행하였다더라도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정도로 중한 비행만이 대항이 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점을 합한다면, 정도가 심한 비행행위를 지속적으로 범하였을 때 그러한 비행행위군이 연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비행이 어떠한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 소년법 제 4조에 의하면, 비행소년은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①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유책적인 범죄행위를 한 소년.

②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불 한 행사 미성년자

③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자, 범죄성이 있거나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

③-1 불량행위소년 : 음주, 각연, 흥기소지, 싸움, 부녀자회통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20세 미만의 소년(풍기문란행위소년)

③-2 요보호소년 : 불량행위소년은 아니나, 학대, 혹사, 보호자의 보호로부터 유기,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 즉 미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등 보호를 요하는 소년.

상기 분류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비행행위보다는 비행자로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경우를 보면, 법령에 있어서 구분이 있을 뿐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보면 비행행위를 기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범소년의 경우를 보면 현재의 행위보다는 잠재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범죄성이 있거나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라는 규정을 보면, 비행행위보다는 비행자가

2) 이러한 입장의 대표로서 T. Hirsch의 사회통제이론을 들 수 있다.

3) 이러한 입장의 대표로서 H. Becker, E. Schur 등으로 대표되는 낙인이론을 들 수 있다.

4) 이러한 입장은 Glueck를 들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하위문화이론을 들 수 있다.

중심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비행소년 즉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 역시 비행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행소년이 되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의 증가된다는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의 근저에는, 우범소년중 일정한 연령을 지나서, 즉 14세 이상이 되어 형벌법령에 위배된 자는 범죄소년이 되며,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 된다는 가정이 있다. 형벌법령 즉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나이에 관계없이 즉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기소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중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은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 뿐 아니라 오직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경한 행위도 포함된다. 우범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행위’라든지, 가출,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행위, 즉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비행행위는 불량소년의 개념규정에 더욱 잘 나타나 있다. 불량소년이란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깃연, 흥기소지, 싸움, 부녀희롱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로 규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비행의 개념은 비행행위와 비행자, 양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즉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 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 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경범에 해당하는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청소년비행 척도

지금까지 비행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개념들이 경험적·실증적으

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일 먼저 공식통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보완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기보고연구, 피해자조사 및 Sellin과 Wolfgang의 죄질척도 *seriousness scale* 와 기타 척도들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1) 공식통계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는 1963년에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이 그 효시이다. 중앙정보부에서 월간으로 발간하다가 63년 12월부터 대검찰청으로 이관,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즉 일년에 4번 발간하여 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에 관한 공식통계라 볼 수 있다. 범죄백서는 범죄분석을 기초로하여 1년 단위로 합하여 집적한 자료이다. 이것은 1965년에서 1970년까지 연간으로 발행되다가 1972년 폐간되었으나 1984년부터 다시 연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였으나 1984년 이후 법무연수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이외에도 청소년 백서, 사법연감, 교정국 통계 등 공식통계가 있으나 대부분 범죄분석을 기초로한 2차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공식통계를 기초로 하여 그 나라의 범죄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범죄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발간되는 공식통계에 대해서는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으나 범죄통계는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점에서 가장 악명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식통계의 문제점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공식통계는 경찰에 알터진 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사터당

국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즉 숨은 범죄를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숨은 범죄 혹은 범죄암수의 비율이 들어난 범죄에 비해 엄청나게 많다고 추론된다면 공식통계에 기록된 범죄는 실제로 발생한 범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둘째, 발견 및 보고된 범죄를 처리하는데 단일성이 없다는 점이다. 한 사회내에서의 법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법규의 제정, 혹은 사법당국의 행정체제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보고 및 집계와 단일성이 없어 비교를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은 폭력범죄로 집계되는데 반하여 상습적인 폭행이나 집단폭행등은 특별법으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이다. 셋째, 사법당국의 의지가 개입되어 통계가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의 의식속에 굳어진 범죄를 중심으로하여 범죄통계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기업의 비리행위, 화이트칼라범죄, 부정부패와 같은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범죄는 단순한 특별법위반으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와 더불어 범죄단속 특별기간에는 갑자기 범죄가 증가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감소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범죄통계는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발간하고 있으며 학술적인 연구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공식통계만이 유일한 전국적인 통계라는 점이며 일 개인 혹은 하나의 단체가 전국적인 통계를 수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식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시도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피해자 조사와 자기보고질문서와 죄질척도이다.

2) 피해자 조사

피해자조사는 공식통계의 문제점 중 숨은 범죄 *hidden crime* 를 밝혀내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공식통계가 범죄자를 중심으로, 즉 가해자 중심의 집계방법이라면, 이 방법은 역으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범죄행위를 집계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한 피해자 조사는 간혹 있었으나,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는 1973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그 후 미국 범죄통계국에서 주관하여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이웃인 일본만 하더라도 1970년대 중반에 일부지역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도 1980년에 이르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989년에는 영국, 스코트란드, 서독, 불란서, 미국, 캐나다 등 14개국이 공동으로 피해자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⁵⁾

만일 모든 범죄에 대한 보고율이 비슷하다면, 공식통계의 문제점은 상당히 적어진다. 절대적인 보고율을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면 실제에서 일어난 범죄의 총량을 추산할 수는 없다. 아울러 숨은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범죄간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다. 즉, 살인에 대한 강도의 비율은 50%가 보고되건 20%가 보고되건 같은 비율로 보고되면 상대적 비율은 같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장 적게 보고된 범죄(소매치기 22%)와 가장 많이 보고된 범죄(회사에 대한 강도 86%)와는 거의 4배나 차이가 난다.⁶⁾

피해자 조사의 한계점은 많다. 첫째, 모집단

5)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조사에 참여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6) 미국법부성(1982).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에 대한 전체조사가 아니라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추정치만 가능하며, 둘째 매년 전국적인 규모로 하기에는 예산, 시간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모든 범죄를 다 포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살인과 같이 피해자가 죽어 없는 경우,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발생건수가 적어 표본조사로는 표본오차가 클 수 밖에 없는 범죄가 있으며,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 *victimless crime*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조사 불가능하고, 화이트칼라 범죄 중 구체적 피해자를 찾을 수 없는 범죄(예를 들어 과대광고)에서는 공식통계에 대한 완전한 대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공식통계에서는 알 수 없는 숨은 범죄를 간접적으로 추정한다든지,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즉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범죄에,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는가 등의 가해자 중심의 통계에서는 볼 수 없는 요인등을 밝혀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3) 자기보고 연구

자기보고 연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에서 개발되었다. 첫째 이유는 피해자 조사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식 통계에서 알 수 없는 숨은 범죄를 알아내려는 목적이다. 피해자 조사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숨은 범죄를 추정한다면, 자기보고 연구방법은 가해자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즉 경찰이나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행한 범죄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물어보는 방법이다. 피해자 조사와는 달리 전국적 규모의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아직은 없었다. 비교적 소규모의 표본에 대해 조사를 하여 숨은 범죄량

의 추정에는 그리 정확한 방법은 되지 못하나, 조사 연구에 의하면 피해자 조사 연구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즉 범죄별로 검거된 경우가 다르다는 것과 적발되지 않은 범죄 즉 숨은 범죄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보고 연구의 문제점 역시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의 신뢰성 문제이다. 즉 얼마만큼 정직하게 대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학술적 연구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공식 통계의 분석단위는 행정 구역 즉 집합적 단위인데 반하여 자기보고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라는 점이다.

3. 우리나라의 연구활동과 그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비행은 매우 광범위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마디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힘들다.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현상은 청소년비행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식통계는 주로 법적인 개념에 의거하여 집계됨으로 범죄소년 중심의 양적 측면을 보여준다. 물론 숨은 범죄의 양이 적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설사 숨은 범죄가 없다고 하여도 범죄행위중심의 개념정의에 의해 통계가 작성되는 것이다. 범죄통계에는 행위자, 즉 비행청소년 중심으로도 집계되나 이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 즉 우발적으로 저지른 청소년이라도 그 행위가 형벌행위에 저촉될만큼 심각하면 통계에 산입되는 것이다. 한편, 우범소년의 경우를 보면, 미성년자 풍기사범이라는 제목하에 공식통계에 나타난다. 우범소년에 대한 개념규정과는 달리 통계적으로는 행위자 중심이라기 보다는 행위 중심으로 통계처리되며 다만 다른

점은 소년범죄에 비하여 그 죄질의 심각도가 경미한 음주, 흡연, 흥행장출입 등의 행위에 대한 통계가 되는 것이다.

학술적인 연구논문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 비행현황을 파악하고 있다.⁷⁾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음주, 흡연등의 경미한 비행도 청소년비행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범죄통계상에 나타난 비행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행율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에 청소년 풍기사범으로 단속된 통계를 보면, 음주가 15,536건 흡연이 26,045건 흥행장출입이 2,954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2,500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음주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57.3%, 흡연은 58.7% 당구장, 디스코장에 출입한 청소년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을 표본으로한 결과를 갖고 전체 비행의 양을 추산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음주, 흡연과 같은 비행은 공식통계에 나타난 숫자보다는 적어도 100배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자기보고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 척도는 다양하다. 그 중 어느 척도가 가장 좋은가 하는 질문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척도란 연구 목적에 합당하며 신뢰성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척도라든지, 혹은 어떠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척도의 사용은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미국에서 있어 왔던

비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비행척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혹은 발견하고자 하는 이론적 배경이 무엇이건간에 비행행위 중심의 척도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이론은 비행행위보다는 비행자 중심인데에 반하여 조사연구는 행위중심이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둘째, 대부분의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는 명목척도의 수준에서 측정된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2분척도 *dichotomy* 라는 점이다. 셋째, 비행의 개념에 대한 하위차원이 일반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 비행개념의 하위차원은 죄질 *seriousness*, 종류 *typology*, 빈도 *frequency*, 간격 *interval*, 징후군 *symptom* 등 다양하다. 이 중 빈도는 많은 조사 연구에서 비행척도 구성에서 하위차원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죄질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죄질의 경우에는 간혹 Guttman Scale적인 척도에 고려되고 있으나, Sellin과 Wolfgang의 죄질척도의 이용은 비행연구에서는 거의 드물다.

공식통계를 보완하는 자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해자 조사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4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에서 15,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으나, 조사방법상의 문제가 많으며 단순한 양의 추정만을 시도하여 학술적인 의미는 그리 없다고 평가되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범죄 및 비행 피해 중 경찰에 보고된 것은 2%에 불과하였다. 즉 공식 통계에 나타난 범죄 및 비행은 숨은 비행의 1/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⁸⁾

7) 공식통계를 이용한 학술논문도 적지는 않으나(이장현, 1967:1975), 대부분의 학술 논문은 숨은 비행의 추정보다는 이론적인 검증을 주 목적으로 하기에 비행척도를 사용한다.

8) 공식통계와 피해자 조사를 단순히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소한 범죄도 범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자기보고식 조사는 자료수집 방법 및 표본의 수가 크지 않아 숨은 범죄를 추정하기는 힘들며 이론적인 조사의 측정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영희(1981)의 조사에 의하면, 245명의 표본 중 27.5%가 잡혔다면 처벌받았을 비행은 한두번 이상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표본의 수가 워낙 적어 숨은 범죄양을 정확히 추정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으나 공식통계보다는 20~100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현상의 파악은 지극히 열악한 수준에 있다. 정확하지 않은 공식통계에 의존하여 총량, 유형별, 나이별, 학력별 등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비행은 빙산의 일각뿐이며,⁹⁾ 전국적 규모의 피해자 조사가 아직은 없음으로 현상에 대한 파악마저도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전국적 규모의 피해자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공식통계가 보다 더 정확해져야 할 것이다.

III. 청소년비행의 원인론에 대한 연구 현황과 그 문제점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이다. 이장현(1967, 1978) 및 한완상(1971, 1973)의 연구 이래로 대부분의 연구논문들은 미국의 이론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한국에 적용한 경험적인 조사이다. 우선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론을 간략히 살펴본 뒤 이제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

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청소년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

청소년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은 크게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통제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낙인이론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범죄사회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인 아노미이론인 Merton(1968)의 아노미 이론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복제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 사이의 불일치 혹은 괴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머튼에 의하면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의 문화적 목표, 구체적으로는 물질적인 부는 모든 계층이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문화적 가치의 차원에서는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문화목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제도화된 수단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배분된 것이 아니라 계층별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수단이 가장 적게 배분된 하층민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미 수용한 문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제도화된 수단은 물론, 비제도화된 수단마저도 이용하게 되며 그 결과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문화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사회적 괴리를 머튼은 아노미라 칭했다.

일반적으로 하위문화 이론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Cohen(1955)의 비행하위문화이론으로 대표되는 대항문화 *counter-culture*로 비행하위문화를 보는 관점이고, 둘째는

9) 청소년비행에 관한 통계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발간한 「청소년백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대검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 중 청소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

Miller(1958)의 하층계급문화이론 *lower class culture theory*으로서 하층 청소년 문화를 중상층문화의 연장 및 확대로 보며 대항적인 문화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이다.

Cohen의 대표작 비행소년(Cohen, 1955)은 Park(1936), Shaw & McKay(1942), Sutherland(1966)등으로 대표되는 Chicago학파의 문화전달이론 *cultural transmission theory* 과 Merton의 Anomie이론에 대한 종합화를 시도한 것이다. 즉 문화전달이론으로부터 하위문화의 특성을 받아들였고 Anomie이론으로부터 하위문화의 발생기원을 찾으려 한 것이다.

Cohen 역시 미국사회의 지배문화는 중상층의 문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상층의 소년은 지배문화에 의한 사회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는다. 반면 하층청소년은 중상층과는 다른 문화속에서 사회화되므로 기존의 중상층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진다. 환언하면 집단적 부적응현상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Cohen은 청소년비행이 일반적으로 집단적 현상(Cohen, 1955; Cloward & Ohlin, 1960; Shaw & McKay, 1931; Glueck & Glueck, 1957)을 강조하여 이러한 집단적 부적응도 역시 집단적으로 해결한다고 보았다(Cohen, 1955: 65-67). 즉 그들은 그들에게 불리한 중상층의 척도(가치)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준거틀을 마련하므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준거틀이 하층비행문화라는 것이다.

Cohen의 비행하위문화 이론도 아노미 이론의 영향을 받았으나 Cloward & Ohlin(1966)의 기회구조 이론은 아노미 이론의 연장 및 보완이라 할 수 있다. Cloward와 Ohlin은 Cohen

과는 달리 하층비행문화의 문화적 내용 및 특성을 밝히는 것보다는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들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erton의 아노미 이론은 결국 합법적 혹은 제도화된 수단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Merton에 의하면 합법적 수단의 이용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비합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가정을 했으나, Cloward와 Ohlin은 비합법적 기회도 누구에게나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이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비합법적 수단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회에서는 합법적 기회도 비합법적 기회도 차등적으로 분배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기회구조 이론의 핵심이다.

Miller(1958)의 하층계급문화 이론은 Cohen의 비행하위문화 이론과는 달리 하층문화를 중상층문화의 대립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며 Cloward & Ohlin처럼 하층문화의 구조적 맥락속에서 파악하지도 않았다. 사회학자라기보다는 인류학자인 Miller는 하층문화를 그 자체, 하나의 고유문화로 규정하고 그 문화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 어떻게 비행과 연관이 있는지 밝히려 하였다. Miller의 이론의 핵심은 하층문화를 관심의 쫓점 *focal concerns* 으로 설명한 것이다. 관심의 쫓점이란 하층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유형의 관심사로서 중상층의 그것과는 상이한 것”(Miller, 1958: 352)으로 정의한다. 하층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관심의 쫓점은 발생 *trouble*, 강인성 *loughness*, 영리성 *smartness*, 흥분 *excitement*, 운명주의 *fatalism*, 그리고 자율성

autonomy 등 여섯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초점은 현시적 *overt* 으로나 묵시적 *covert* 으로나 비행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Hirschi(1969)에 의하면 이제까지의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규범준수행위가 정상적인 것이고 규범위반행위는 비정상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결과 기본적인 물음은 “왜 사람이 규범을 어기는가?”하는 것이 된다. 반면 Hirschi는 정반대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왜 사람은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가?”(Hirschi, 1969 : 10). 따라서 Hirschi에 있어서는 “일탈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며 오히려 동조행위가 설명되어야 할 것”(Ibid : 10)인 것이다. Durkheim의 영향을 받아 Hirschi는 위의 질문에 간단한 명제로 대답한다. “사회통제 이론은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해졌거나 끊어졌을 때 비행행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Ibid : 16). 즉 모든 사람은 규범을 준수하려고 보다는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악설적인 입장의 인간관에서 사람이 규범을 어기고 싶은 충동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으나 사회통제가 결과 사회와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유대가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환언하면 사회통제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치 못하게 되면, 그 개인은 거의 자동적으로 규범을 어기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Merton의 아노미 이론과는 정반대의 논리이다. Merton은 어떠한 특수한 계층(하층)의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구조적인 긴장 *strain*을 행사하여 그 결과 비행을 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는데 Hirschi는 역으로 비행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긴장은 없으며 오히려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만이 있다는 것이다.

Sutherland의 차등적 접촉이론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범죄행위도 일반행위와 마찬가지로 배워서 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내용은 범죄기법뿐 아니라, 범죄(또는 법)에 대한 태도가 포함된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제6명제를 쉽게 풀어 말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배우면 범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며, 위반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배우면 위반하게 된다는 거의 순환논리 *tautology*에 가까운 단순한 이론이다. 비행사가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은 비행술이 좋아보여서 배웠기 때문에 비행기를 운전한다는 식의 지극히 당연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죄행위 즉 법을 위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배웠고 따라서 범죄기법을 배워 범죄를 한다는 논리이다. 차등적 접촉이라 함은, 이러한 법에 대한 태도를 소집단내에서 개인끼리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데, 법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비우호적인 태도를 ‘차등적’으로 개인과의 ‘접촉’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즉 범죄자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우호적인 태도보다 더 많이 배웠고, 역으로 비범죄자는 우호적인 태도를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Sutherland이론이 대단히 평가되는 것은 차등적 접촉이론이 범죄화과정에 관한 효시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의 설명에서도 구체적 단계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공리적 이론 *axiomatic theory*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범죄화과정을 다룬 대표적인 이론은 낙인이론이다. 낙인이론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정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점뿐 아니라, 지금

까지의 범죄원인론과는 달리 범죄에 대하여 상대적 입장을 취한 점이다. Becker(1973)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의 내재적 속성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라는 낙인을 찍은 행위”(Ibid, 308)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비행행위자란 그러한 낙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자이며 그 집단에서 국외자 *outsider*가 된다는 것이다. 낙인이론가들의 관심은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 Becker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것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유 혹은 충동 *random impulse*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Becker, 1963: 30). 따라서 낙인이론가들의 관심은 비행행위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비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career deviant*에 관심을 둔다. 즉 왜 사람이 비행이라고 낙인찍힌 행위, 사회적으로 거부된 행위이며 그 결과로 여러 불이익이 수반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Becker(1963)는 일탈자라는 낙인은 하나의 사회적 지위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지위 중 대표되는 지위 *master status*가 된다고 주장한다. 범죄자라는 대표지위를 갖게 되면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만, 계속적인 사회적 반응 *social reaction*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범죄자라는 자아개념을 갖게 만든다(Schur, 1971). 이와 같이 사회적 반응으로 인하여 범죄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제2의 범죄 *secondary deviance*를 저지르게 된다고 Lemert(1951, 1967)는 주장한다. 일차적 범죄 *primary deviance*는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이차적 범죄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름아닌 낙인이 된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원인론에 대한 연구와 그 문제점

청소년비행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한완상의 논문(1971, 1973)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완상은 Merton의 아노미 이론과 Cloward & Ohlin의 기회구조이론을 집목시켜 기회인지와 능력인지라는 새로운 개념틀로서 아노미론을 재구성 하여 한국에 경험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노미 이론이 한국의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그리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몇편의 논문(김준호, 1973; 이장현, 1978) 제외하고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가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남재봉(1982), 이성용(1985), 전숙자(1985), 노성호(1986), 이성식(1986), 윤성은(1986), 강익희(1986), 유혜경(1986), 박정선(1987), 이동원(1988), 광대경(1988), 유승호(1989) 등의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석·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고, 1986년 한국형사정책학회의 창립과 더불어 「형사정책」이라는 전문학술지가 창간되면서 김준호(1986, 1988), 심영희(1986, 1987), 이기현(1986), 이윤호(1988)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경험적·이론적인 조사연구논문들은 대부분 미국의 이론을 수정없이 한국에 적용한 연구로서 주로 아노미론(김준호, 1973; 남재봉, 1982), 하위문화이론(이성식, 1986), 사회통제이론(유혜경, 1986; 강익희, 1986), 차별적 접촉이론(이성용, 1985)을 통해 한국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대부분의 미국이론이 어느정도 한국의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하위문화이론과 차별적 접촉

이론의 변형인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무엇보다도 더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논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특히 미국의 이론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한국에 적용한 연구로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참여관찰 혹은 질적방법을 적용한 한국적 이론의 발견을 시도한 연구가 없으며 외국이론으로부터 도출한 가설검증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는 비록 아노미이론의 변형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적 모델의 발견을 시도한 첫번째의 연구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부담 및 압력과 청소년비행과의 연관성을 아노미 이론 및 통제이론의 시각에서 연구한 것으로서 공부에 실패한 학생이 부모로부터 유리되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비행에 빠지게 된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대상을 학생에 국한시켰다.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중 학생비행의 비율이 약 2/5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연구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당수의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 때문에 퇴학을 당했거나 스스로 자퇴한 경우가 많은데 현재 재학중인 학생만이 연구대상이 되어 대표성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상당수의 청소년비행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발생됨으로 학생비행에 대한 연구는 제한점을 갖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가 대도시 특히 서울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

정하였을 뿐 아니라 표본의 선정이 확실적인 표본이라고 보기가 매우 힘들다. 전국적인 조사는 거의 없어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척도가 갖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척도의 신뢰도가 의심되거나 신뢰도 검증을 한 연구가 거의 없다. 아울러 음주, 흡연과 같은 비행이라고 보기에 사소한 행위에 척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IV.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석·박사논문을 합하여도 50편도 안되는 연구의 양과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의 청소년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결론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① 한국청소년비행의 총량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 전국적 규모의 피해자 조사가 시급하다. 공식통계의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이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척도도 여러 한계점으로 인하여 비행량을 추적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 ② 학술적인 연구조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거의 불가결하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거의 모든 연구가 비행여부, 혹은 빈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상 매우 조잡하고 열악한 척도이다. Guttman Scale을 활용한 척도의 개발 혹은 최질척도의 활용을 통해 보다 엄밀한 척도의 개발이 요청된다.

③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표본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대도시 특히 서울지역에 국한한 조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사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석·박사 논문은 물론 기타 연구논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사비용이 제한되어 있어 전국적인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로 조사비용이 절감되나 대상을 일반청소년으로 확대하였을 경우에는 개별면접에 의존하여야 함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이 확대되어 전국적 규모의 면접 조사가 시급히 요청된다.

④ 외국이론 일변도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한국적 이론의 발견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관찰, 사례연구등의 질적 방법을 적용한 조사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이론을 위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사 외국이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적인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⑤ 청소년비행에 대한 원인은 매우 복잡한 것이며 그에 대한 처방 역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계와 실무계와의 연계가 시급히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학계에서는 외국의 이론에만 집착해온 경향이 있으며 실무계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없이 공식통계에

의존한 실태 파악 및 실무경험을 통한 미봉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학계와 실무계가 연계되어 종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한국 청소년비행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활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현상론과 원인론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기가 힘들 정도로 연구가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비행의 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식통계의 재해석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극히 열악한 조사 정비로 인하여 대표성이 거의 없는 표본에서 얻은 자기보고식 연구에 의한 숨은 비행의 발견을 시도한 정도이다. 정확한 실태의 파악을 위해서 대규모의 피해자 조사가 시급히 요청되며, 공식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다. 특히 공식통계의 개선에는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하며 대규모 조사 역시 재정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효과적인 연구 및 대책 수립에 학계와 실무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청소년비행의 원인의 발견, 환원하면 한국의 청소년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발견을 위한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역시 발견된다. 외국이론의 검증 보다는 질적인 방법을 통한 이론의 발견이 더 필요하다. 적합한 척도의 개발과 더불어 보다 더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조사 연구가 요청된다. 아울러 연구 대상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비행으로 확대하지 말고 보

다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행이란 개념하에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가 있다.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약물비행 등……. 다양한 비행을 하나의 이론적인 틀로서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앞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약물과 연관된 비행의 연구는 독립적인 맥락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부의 연구보고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체육부, 1989)는 매우 고무적인 연구라 평가되어야 한다. 청소년비행과 성인비행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 조직폭력배에 대한 연구,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등 앞으로 연구할 과제는 다양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의 수립이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익희(1986, 청소년비행에 관한 일연구 : 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곽대경(1988), 청소년비행의 통합모델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준호(1973), 한국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아노미, 하위문화, 기회구조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준호(1985), “범죄사회학 이론의 흐름”, 형사정책(1).
- 김준호, 이성식(1988),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고찰—학위문화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2).
- 노성호(1986),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 비행척도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정선(1987),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연구 ; 낙인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심영희(1981), “한국의 ‘숨은비행’의 사회학적 연구—근로청소년과 고교학생과의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15).
- 심영희(1981), 「상대적 박탈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2)
- 심영희(1988), “중류계층비행연구 : 생활사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3).
- 윤성은(1986), 사회계층이 청소년비행 및 처벌에 미치는 영향 : 통제의 선택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승호(1989),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차별 접촉이론과 통제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혜경(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현(1986),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1).
- 이동원(1988), 실업율과 범죄율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용(1985),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식(1986),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운호(1988), 비행의 통합적 설명 ; 그 이론적 합성, 형사정책(3).
- 이장현(1967), “통계상으로 본 한국의 범죄구조”, 이대 한국문화논총(10).
- 이장현(1967), “일탈행위와 사회학적 이론”, 한국사회학(3).

- 이장현(1975),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범죄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10).
- 이장현(1978), "한국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일탈행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이대한국문화연구원논총(31).
- 전숙자(1985), 도시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연구: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1974), 청소년의 피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도시청소년을 중심으로.
- 체육부(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 한완상(1971), "한국에 있어서 소년비행과 원당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7).
- 한완상(1973), 현대사회와 청년문화, 법문사.
- Becker, H.(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 Cloward, R. and L. Ohlin(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Chicago: Free Press.
- Cohen, A.(195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Gang*, Chicago: Free Press.
- Glueck, S. & E. Glueck(1956), *Phyique and Delinquency*, New York: Free Press.
- Hirsch, T.(1976), *The Causes of Delinquency*, U. of California Press Hurlock E. *Development Psychology* (4th ed.), New York: MacGrow Hill.
- Jan, L. & et al(1989), *Experiences of Crime across the World: Key Findings from the 1989 International Crime Survey*, Boston: Kluwer Law and Taxation Pub.
- Lemert, E(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New York: P-H.
- McAllister, R.(1970), *Adolescence and the problems in Adolescent Pyschology*, Berkeley: Mr Cutohan Pub. co.
- Merton, R.(195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Miller, W.(1958), "Lower-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u of Gang Delinquency", *J. of Social Issues* (15) pp. 5~19.
- Park, R., "Human Ecology", *A.J.S* 42(1)
- Schur, E.(1971), *Labeling Deviant Behavior: Its Sociological Implications*, New York: Random House.
- Sellin, T. & M. Wolfgang(1978), *The Measurement of Delinquency*, Montclair: Patterson Smith Pub.
- Shaw, C. & H. Mackay(1971),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Press.
- Sutherland, E. & D. Cress(1974),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